

Humanism thru
Digital

SBS



「생명 그리고 문명의 씨앗」을 형상화한 SBS의 새로운
심볼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밝은 미래 문화를 이끌겠다는
SBS의 Humanism 정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000 11



커버스토리
 SBS는 창사 10주년 기념일인 11월 14일 새 심볼과 CI를 발표한다.
 「생명 그리고 문명의 씨앗」을 형상화한 SBS의 새로운 심볼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밝은 미래 문화를 이끌겠다는
 SBS의 Humanism 정신을 상징하고 있다.



04



20

창사 10주년 특집 드라마 「빛물처럼」__ 거부할 수 없는 그들만의 상처 이지혜	04
창사 10주년 특집 드라마 「은사시나무」__ 묵묵히 지켜온 가없이 넓은 사랑	08
창사 1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기의 대탐험」__ '기'와 '과학'의 만남 김성동	10
새 드라마 드라마 스페셜 「여자 만세」__ 보통 여자의 당당한 홀로서기 정 열	14
드라마 창 아침 연속극 「용서」__ 두 여자가 살아가는 게임의 법칙 김진희	20
새 진행자 박미선, 박상도, 이동우 __ 완벽한 호흡으로 정보와 재미 충족 주정임	24
프로그램 탐험 「이휘재의 스포츠 대탐험」__ 무기력한 일요일을 거부한다 이수진	26
드라마 창 일요 드라마 「메디컬 센터」__ 젊은 의학도들의 숭고한 휴머니즘 박석근	28
화제의 코너 「뷰티풀 라이프」__ 세 여자의 아름다운 지상 탈출 성민지	32
프로페셔널 김수현 문화부 기자 __ 문화예술을 향한 지독한 사랑 최병일	34
제작기 「출발! 모닝와이드」의 '실크로드' __ 과거와 현재를 잇는 대륙 횡단의 길 윤성만	36
라디오 세상 새롭게 선보이는 SBS 라디오	40
이달의 SBS영화	42
클릭! 인터넷	44
TV & RADIO 편성표	46

거부할 수 없는 그들만의 상처

극본/노희경, 연출/이종한, 11월 12일 밤 9시 50분부터 2부작 연속 방송

SBS가 창사 10주년 특집극으로 가슴 따뜻한 드라마를 만들었다. 2부작 「빛물처럼」. 꿇을래야 꿇을 수 없는 운명인 천륜을 그린 이 드라마는 인간적인 아픔들을 서정적으로 풀어나가며 시청자들의 마음에 다가설 예정이다.

「빛물처럼」의 여주인공은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질경이풀 같은 여자이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부자도 아니며, 별다른 재주없이 운명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픔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가장 한국적 설움을 담고 있는 이름 '미자(배종옥 분)'가 바로 그녀의 이름이다.

미자는 지리산 근처 산 마을의 병어리 아버지(김인문 분)와 무지랭이 어머니(김영옥 분)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딸을 바라보며 행복하던 두 사람. 미자도 역시 별 일 없이 자랐더라면 그럭저럭 행복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운명의 지뢰는 때때로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어린 미자를 목욕 시키기 위해 분주하던 어머니, 그 틈에 미자는 가마솥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하얀 김을 만지고 싶어 다가섰다. 어머니가 조금만 일찍 미자를 발견했더라면, 그녀는 최소한 불행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미자는 가마솥에 빠지고 만다. 그리고 평생이 가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몸에 새겨졌다.

학창시절 내내 미자의 별명은 '긴 소매 긴 바지'였다. 삼복 더위에도 상처를 가리기 위해 그녀는 긴 소매에 긴 바지를 입고 다녔다. 이렇게 육체에 새겨진 상처는 점점 그녀의 영혼 깊은 곳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부모 말고 이 세상에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미자의 사람에 대한 분노는 고스란히 순박하기 그지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분출됐다.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출해 버린다.



죽으려고 했지만 죽지 못했다. 대신 아무렇게나 살아 버렸다. 그러다 만난 뱃사람, 그는 그녀 몸의 상처를 어루만져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갖자, 그는 미자 곁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물에 처자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예쁜 딸을 낳은 미자는 아이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그리고 집을 떠난 지 10년 만에 부모를 찾아가 어린 딸을 맡기고 다시 정처 없는 길을 떠난다.

미자가 고적한 섬 완도의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지인(정웅인 분)을 만난 건 어쩌면 영킨 실타래 같은 운명을 풀어 보려는 또 다른 운명인지도 모른다. 단순하게 손님으로 단란주점을 찾은 지인은 미자의 상처가 얼마나 아팠는지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때문에 점점 그녀의 상처 깊은 곳으로 다가간다. 그도 역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피해 아내와 별거까지 하며 서울에서 도망치다시피 광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3살짜리 아들의 조그만 몸이 하늘을 날 듯이 튕겨 올랐다. 별다른 절망을 느낀 적 없이 살아온 지인에게 갑자기 절망이 들이닥친 것이다. 산소 호흡기를 덮고 있는 아들의 작은 얼굴에서 희망을 찾이란 쉽지 않았다. 말라가는 아내와 아무 기척도 없이 죽어가는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지인은 몸부림쳤다. 결국 그는 아내를 채워 놓고 아들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냈다. 아이가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도록 도와주



「빛물처럼」은 꿀을래야 꿀을 수 없는 천륜을 그린 드라마이다. 운명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픔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외판 설 술집 여종업원과 가슴 속 깊이 절망을 묻은 채 살아가는 지방 대학 시간강사의 운명적인 만남. 서로의 상처를 알기에 서로를 이해하는 이들은 결국 천륜은 거부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모르는 척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지인은 결국 아내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단란주점 종업원과 지방대학의 시간 강사, 그들의 인간적인 만남은 어찌보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고통인 점을 생각한다면 상처받은 두 영혼의 만남은 필연이기도 하다. 미자의 깊은 상처를 알게 된 지인은 진정으로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미자, 결국 지인은 미자 대신 그녀의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는다. 그곳에서 산소호흡기를 덮어쓰고 누워 있는 미자의 딸을 바라보며, 그는 이들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다시 확인한다. 그리고는 돌아와 미자가 돌아가야 할 곳은 나이 든 부모와 다섯 살짜리 어린 딸이 있는 곳을 조용히 말한다. 괴로워하다 노부모와 죽음을 눈 앞에 둔 아이에게 돌아가는 미자, 그 모습을 보며 지인도 더 이상 운명을 피하지 않고 아내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힌다.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한결같은 것은 계절과 빗줄이니까.

시릴 정도로 푸르고 드넓은 원도의 가을 바다와 단풍 덮인 구례의 아름다운 지리산 자락이 「빛물처럼」의 주무대이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런 자연의 모습이 굳이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이종한 프로듀서는 의도적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무대로 삼았다.

“천륜 또한 자연에 속하는 거역할 수 없는 그 무엇 아니겠어요? 천륜을 끊지 못하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지요. 때문에 자연 풍경은 이 드라마 속에서 중요한 상징이지요. 동질적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다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모습은 자연의 이치와 통하고 있으니까요.” **SBS**

글/이지혜 · 시인, 사진/김연식

묵묵히 지켜온 가없이 넓은 사랑

어머니의 억척스럽고 열정적인 자식사랑과는 달리 아버지의 자식사랑은 항상 뒤켠에서 묵묵히, 그러나 가없이 넓고 깊은 그 무엇인가를 자식들에게 준다. 「은사시나무」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 속 깊이 메워줄 드라마이다.

극본/김수현, 연출/곽영범, 제작/삼화프로덕션
11월 14일 밤 8시 50분부터 3부작 연속 방송



전쟁을 겪고, 수많은 정치 환란을, 보릿고개보다 더 무서운 경제 한파를 겪었던 우리의 아버지. 그 거센 세파를 의연히 헤쳐 나왔으면서도 어느덧 보여지는 초로의 축 처진 뒷모습에 자식은 눈물 짓는다.

「은사시나무」는 「어디로 가나」(1992년), 「인생」(1995년), 「아들아 너는 아느냐」(1999년)에 이은 김수현, 곽영범 오랜 지기가 보여줄 또 하나의 가족 드라마이다. 붕괴돼가는 현대 가정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온 이들이 이번에 보여줄 화두는 아버지.

채신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옛집에 살면서 부인의 제수용품들 손수 준비할 정도로 부인과의 금슬이 좋았다. 별이가 시원치 않았던 아버지 대신 동생들의 학비를 책임졌던 큰아들(한진희 분)이 1년 전 평생 직장이 될 줄 알았던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 이미 규모가 커진 살림을 줄이지 못하는 큰 며느리(박정수 분)는 이제는 시아버지 앞에서도 남편의 무능을 탓할 만큼 화가 나 있다. 동생들 뒷바라지에 지점장까지 지냈지만 퇴직금 외엔 손에 쥘 돈이 없는 남편이 답답한 아내와 달리, 때로는 만형으로 때로는 아버지와 같았던 형의 몰락을 바라보는 동생들은 사치스러운 형수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이 가정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의사인 손자 성진(남성진 분)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5년간 사귀어온 간호사 초희와의 결혼을 추진하려고 해 며느리와의 갈등이 심각하다.

중학교 때부터 몸이 약한 아내 대신 집안 일을 맡은 바람에 학교도 제대로 못마친 큰 딸 경란(양희



경 분이 아버지의 마음엔 항상 걸린다. 더구나 경란은 3년전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한 무길(임채무 분)과 이혼하고 강아지를 돌보는 것을 주 수입으로 살아간다. 형제들이 경란을 잘 챙겨주지 않는 것도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무길이 노름을 끊었다며 다시 합치자고 제의 해 온다는 것이다.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는 둘째 아들 경택(이덕화 분)은 화가 나면 부인을 구타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부모나 형제 보다 돈이 우선인 둘째 며느리인 혜자(견미리 분)는 그 나름대로의 경제 철학으로 항상 남편과 충돌하고...

딸과 함께 부인을 유학 보내고 홀로 사는 셋째 아들 경서(유동근 분). 의사로 성공했지만 혼자 사는 것이 아버지 마음엔 마땅찮다. 또한 방송사 프로듀서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막내딸 경주(조민수 분)이지만 아버지는 혼자 사는 것이 못내 아쉽다.

「은사시나무」는 아내의 제사를 준비하며, 모두 모인 자식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고목처럼...

자식을 낳아 길러봐야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 아버지, 그 이름만으로도 웬지 모를 쓸쓸한 무거움으로 가슴을 가득 메우게 된다. 평생토록 자식을 위해 묵묵히 지켜온 사랑, 이 가을 부모의 가 없이 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SBS**

청사 10주년 특집 | 다큐멘터리 「기의 대탐험」

기와 과학의 만남 그 허와 실은?

그 동안 신비한 능력으로 생각되었던 '기의 힘'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SBS는 청사 10주년을 맞아 '기의 세계'가 앞으로 우리 인간의 삶과 건강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3부작으로 구성된 「기의 대탐험」을 통해 기의 허와 실을 알아본다.

제1부 당신은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제2부 기적을 만드는 사랑의 손길
제3부 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글·구성/최은영, 연출/홍순철
11월 11, 18, 19일 밤 10시 50분 방송



「기의 대탐험」은 기를 ‘외경심을 갖고 봐야 할 신비한 어떤 대상’이 아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 기를 신비의 차원이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화된 잣대로 해석한 것. 그렇기 때문에 ‘기는 초능력’이라는 일반 대중의 그릇된 선입견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작진의 바람이다.

SBS가 창사 10주년 특집 기획으로 다큐멘터리 「기의 대탐험」을 마련했다. ‘기’와 ‘과학’의 만남. 한마디로 「기의 대탐험」은 기에 대한 실체와 진실을 밝혀 건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해석해 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기와 함께 떠나는 세계 여행

이미 미국 등지에서 그 동안 신비한 능력으로 생각되었던 ‘기의 힘’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기의 대탐험」 제작진이 ‘기의 세계’가 앞으로 우리 인간의 삶과 건강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홍순철 프로듀서를 필두로 하는 제작진은 「기의 대탐험」을 위해 7개월에 걸쳐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대만, 인도, 영국 등 다른 나라의 ‘기의 세계’도 함께 취재했다. 인도에 갔을 때 박훈 조연출이 이질에 걸리는 등 많은 난관 속에서도 취재를 강행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은 동양에만 있는 것으로 알았던 기가 서양에서 오히려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기와 함께 떠나는 세계 여행’의 묘미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하게 보여주는 기의 실체와 진실

이 프로그램은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당신은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는 제목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인 초능력 현상,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선진국에서 국가전략 차원으로 비밀스럽게 연구되고 있는 ‘기과학 연구’ 동향과 ‘기의 정체’는 무엇인가 △초능력만이 기가 아니다 △살아 있는 에너지, 우리 몸에 기가 있다 △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을까 △몸에는 정말 단전(기의 중심)이 존재하는가 △살아 있는 에너지, 내 안에 잠재된 능력 등 9개 분야에 관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특이 능력자로 알려진 미국 오파 씨의 놀라운 능력시범을 취재해 기와 최면과의 관계를 정밀 분석했고, 외적기공능력자로 알려진 우리나라



라 양운하 씨의 세포변화 실험을 통해 그 능력의 허와 실을 과학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또 일본 과학기술청 산하 방사선의학연구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연구 현황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밝혀낸 기의 정체도 소개된다.

제2부 '기적을 만드는 사랑의 손길'에서는 △미국의 종합병원에서 도입되고 있는 기치료의 현주소 △서구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기치료의 매커니즘과 그 정체는 무엇인가 △동물도 기치료를 받는다 △기치료 시 치료사와 환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치료사의 손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인가 △기치료는 정말 효과가 있는가 등을 소개한다. 특히 '기치료 시 치료사와 환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서는 영국에서 개발된 과학적 기기(PP)를 통해 기치료사와 환자 사이에 기 에너지가 연결되고 있는 현상을 국내 최초로 촬영해 방송하고, '기

치료는 정말 효과가 있는가'에서는 뇌성마비인 일본 아이노 어린이의 사례를 통해 기치료 효과, 기치료, 기공사의 능력 등을 과학적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장면을 소개한다.

제3부 '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 잠재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으며, 기수련을 하면 '나'는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황홀경을 맛볼 수 있는가를 다룬다. 이 3부에서는 △유명인의 수련 체험 △국내·외의 기수련 비법 △기수련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의 심리학적 해석 등이 소개된다.

유명인의 기수련 체험에는 할머니 한 분과 기수유열 씨 등이 참여했고, 그 기간은 6개월이었다. 이 기간 동안 운동능력, 심리·뇌파, 장기기능, 마음 상태, 기의 흐름 등을 측정했다.

이밖에 일본, 대만 등의 기과학 연구소를 방문해



기수련 이후 인체의 면역체계 호르몬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집중 취재했다.

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한다

“이번에 제작진이 기를 다루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흑세무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홍순철 프로듀서가 강조하는 말이다.

‘기는 곧 초능력’이라는 등식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사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기를 가지고 흑세무민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는 바로 시청자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치료 같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어려운 것들은 어렵게 촬영해놓고도 편집과정에서 과감히 빼버렸다고 한다. 기를 ‘외경심을 갖고 봐야 할 신비한 어떤 대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는 게 제작진의 생각이다. 그래서 “기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존재와 활용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이 깨닫게 될 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한다. 기를 신비의 차원이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화된 잣대로 접근하려는 제작진의 의도를 알 수 있게 한다.

홍프로듀서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나의 양심, 이성, 상상력을 담보로 만들겠다고 결심했었다”면서 “기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비주얼화 한다는 게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이 프로그램 방송으로 기를 신비화함으로써 ‘기는 초능력’이라는 일반 대중의 그릇된 선입견이 없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SBS**

글/김성동 · 자유기고가



보통 여자의 당당한 홀로서기

극본/박예랑, 연출/오세강, 11월 15일부터 수, 목요일 밤 9시 55분 방송

1960년대부터 서구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여성해방운동은 여성의 인권신장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여성들은 스스로를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그러한 인식이 모든 여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통해 스스로 많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의지 대신 어떤 절대적인 권력으로부터 지배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나약한 심리를 예리하게 꼬집은 바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여성들 중 자신이 과연 완전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길 원하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위로 받고 의지하고 싶어하는지 한번쯤 헛갈려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대개 이상주의적 성향이 강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는 자주적인 삶을 꿈꾸다가 삶에 지치게 되면 결혼이라는 도피처에 안주하기도 하고 소녀시절 백마 탄 왕자를 꿈꾸다가도 어떤 계기로 인해 자주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드문 경우도 있다.

오는 11월 15일부터 방송하는 새 드라마 스페셜 「여자 만세」(극본/박예랑, 연출/오세강)는 독립적인 인생을 찾아가는 한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를 코믹 터치로 그린 드라마다. 이 드라마에는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고달픈 세상살이에 문득문득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남자의 어깨에 기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평범한 여자 주인공과 백마 탄 왕자라 할 만한 돈 많고 잘 생긴 남자주인공이 등장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 만세」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지극히 평범한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 공감대를 형성한다. 지난 3월 기수 김태욱과의 결혼으로 화제를 뿌렸던 채시라가 주인공인 대기업 홍보실 사보제작 담당 여 사원 김다영 역으로 결혼 후 처음 드라마에 출연해 눈길을 끈다.

상반되는 성격의 두 여자 주인공

나이 29세. 은행잔고 30만여 원. 부모의 도움을 조금 받고 장만한 원룸. 조그마한 중고 자동차 한 대. 구형 노트북 컴퓨터. 얼마 전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에게 버림받음. 드라마의 주인공인 다영은 어느 모로 보나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음직한 평범한 인물이다.

작년 MBC 월화드라마 「마지막 전쟁」에서 신세대 맞벌이 부부의 주도권 다툼을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터치로 묘사해 인정을 받았던 박예랑 작가가 이번에는 한 여성의 성공스토리로 수목미니시리즈 평정에 나섰다. 박작가는 “삼각관계도, 콩쥐팥쥐도 없는, 그냥 내 이야기 같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법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부담 없는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주인공인 다영 역의 채시라와 함께 감쪽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채람이 다영의 여동생이자 다영과는 상반되는 성격의 서영 역에 캐스팅 됐다. ‘백마 탄 왕자’인 정혁 역에는 김찬우가 캐스팅 됐으며 다영의 애인이었다가 출세를 위해 다영을 배신하고 회사 중역의 조카와 결혼하는 이정석 역은 변우민이, 서영과 동거에 들어가게 되는 황준원 역은 소지섭이 각각 맡았다. 이밖에 다영의 아버지로 중견 텔런트 김세윤이, 어머니로는 김영애가 출연하며 이덕화와 윤미라가 감초 격인 다영의 이모부와 이모로 나온다.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여자대학교를 아주 무난하고 평범하게 나온 다영은 한때는 커리어우먼으로 성공하고 싶고 여러 명의 멋진 애인도 두며 자유로운 삶도 꿈꾸었지만 현재는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며 억지로 버티는 회사에서 그저 그런 위치에 만족하고 있다.



오세강 프로듀서가 말하는 「여자 만세」 |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로맨틱 코미디”

오세강 프로듀서는 「사랑의 조건」, 「세 남자 세 여자」, 「남자 대탐험」, 「그녀의 선택」, 「7인의 신부」 등을 연출, 섬세하고 가벼운 터치로 드라마에 일가견이 있는 베테랑 연출가다. 박예랑 작가와 처음 호흡을 맞춰보는 소감은, 작년 「마지막 전쟁」에서도 그랬지만 박작가가 역시 라이트 터치에 강한 것 같다.

그래서 각 연기자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자 만세」에 대해 설명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 리얼리티를 살리는 한편 전체적인 분위기를 로맨틱 코미디같은 가벼운 터치로 그려질 드라마다.

제목이 담고 있는 뜻은,

제목은 작가가 달았다. 스토리 자체가 여성의 홀로 서기를 다룬 것이기에 때문에 그런 제목을 붙인 것인데 남성 시청자들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출연자들의 면면이 눈길을 끄는데,

채시라 씨가 결혼 후 처음으로 드라마에 출연한다. 그녀와 작품을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본인이 워낙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해 역시 훌륭한 연기자란 생각이 든다. 서영 역의 채람은 톡톡 튀고 발랄한 본래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려 하고 있다.

촬영과 관련된 뒷 얘기는,

대본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아직 촬영이 많이 이뤄지지 않아 특별한 이야깃거리는 없고, 다만 극 중 남자주인공인 혁의 캐릭터가 처음과는 조금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모자란 것이 없는 백마 탄 왕자였는데 너무나 뻔한 전형적인 구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소 털털하고 허점도 있는 캐릭터로 바꿨다. 김찬우를 캐스팅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여자 만세」는 독립적인 인생을 찾아가는 한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를 코믹 터치로 그린 드라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 만세」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지극히 평범한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 공감대를 형성한다.



최근 사내연애를 하던 남자에게 보란 듯이 차이고, 이젠 결혼 따위는 잊었다며 독신을 부르짖지만 멋있고 잘생긴 남자만 보면 말부터 더듬거린다.

다영에게는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훨씬 잘난 여동생 서영이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반장을 놓치지 않았던 서영은 별 어려움 없이 명문대에 진학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미모까지 갖춰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성격장애를 갖고 있다. 어지간한 남자는 콧방귀도 안 끼고 괜찮다 싶은 남자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었다 싶으면 바로 냉랭해져 버린다.

다영과 서영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다. 서영의 눈에는 언니가 나태하고 한심해 보이기만 하고 다영에게 서영은 항상 스트레스의 대상이었다. 드라마는 대립관계이던 이 자매가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게 되고 화해해가는 과정을 스토리 전개의 한 축으로 삼는다.

리얼리티와 드라마적 설정이 조화 이룬 라이트 페미니즘

또 하나의 축은 물론 다영과 혁의 관계이다. 재력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유망한 벤처기업의 젊은 CEO인 혁은 겉으로 보이는 자신보다 격이 한참 떨어지는 다영에게 '왠지 모르게' 끌리면서 다영의 후원자 역할을 자처한다.

다영에게 실연의 상처를 남긴 남자의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실연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다영이 자살을 하려는 것을 혁이 '우연히' 발견하고는 목숨을 구해주게 되면서부터 관계가 형성된다.

드라마는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는 결혼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나 혁 부모의 완강한 반대에 충격을 받은 다영이 잠깐이나마 안락한 결혼생활을 꿈꾸었던 것을 접고 당당한 독신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오세강 프로듀서는 "가장 평범한 요즘 여성인 주인공이 절망적인 현실에 굴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씩씩하게 찾아가는 과정을 로맨틱 코미디 스타일의 가벼운 터치로 그려보겠다"고 말했다.

리얼리티와 드라마적 설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라이트 페미니즘 드라마 「여자 만세」가 이 가을에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을지 기대된다. **SBS**

글/정열 · 연합뉴스 방송담당 기자, 사진/서창식



성공하는 삶을 위한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좋은 배경이나 인간관계, 지식, 돈, 또는 외모...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조건을 가지고 성공이란 목표를 향해 달린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스스로 갖추지 못한 조건을 만회하기 위해 정정당당하지 못한 방법을 쓸 때도 있다. 말하자면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경우다.

지난달 16일 첫 방송된 아침 연속극 「용서」는 바로 이 성공의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침 드라마로선 다소 묵직한 제목을 지닌 이 작품은 「사랑의 조건」, 「세남자 세여자」 등을 집필한 박현주 작가의 또 다른 야심작. 작가 특유의 극적인 상황 설정과 캐릭터 구성으로 방영 초반임에도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단히 붙들어매고 있다.

「사랑의 전설」, 「파트너」 등을 연출한 최문석 프로듀서의 섬세한 조율과, 양정아, 임지은, 김병세, 손현주, 김청, 송재호 등 주연 연기자들의 탄탄한 연기력도 시선 집중에 일조하는 요소다.

두 여인의 사랑과 성공

이 드라마는 서로 대비되는 두 여자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명우' 갤러리의 수석 큐레이터 민지수(양정아 분)는 유복하고 사랑 많은 집안에서 잘 자란 아름다운 여자.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나, 여고시절부터 앓아온 PMS(생리 중 도벽증상) 때문에



성공하기 위한 삶의 법칙, 여기엔 언제나 선과 악이 대립된다. 결국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하지만 선은 악을 용서하게

두 여자가 살아가는 게임의 법칙

극본/박현주, 연출/최문석, 매일 아침 8시 30분 방송



되는데... 두 여자의 성공의 법칙은 어떻게 전개될지 자못 궁금하다.

사랑하는 연인 한준섭(김병세 분)의 프로포즈를 받고도 섣뜻 수락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어 성공을 가로채는 여자가 바로 같은 갤러리의 어시스트 큐레이터, 고주희(임지은 분)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별로 갖춘 것이 없는 주희는 계약으로 지수의 자리를 빼앗고 거짓사랑으로 그녀의 남자 한준섭마저 손에 넣는다. 그 와중에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애인 장운수(정유석 분)를 헌신짝처럼 버리는데….

성공과 몰락이라는 운명의 쌍곡선을 그려갈 두 여자. 한 여자의 몰락을 발판으로 이루어내는 성공이기에 이 드라마에는 추악한 인간 욕망과 음모가 넘실댄다. 그 욕망을, 그 일그러진 방법론을 얼마나 극명하게 그려내느냐가 드라마 성공의 관건이 될 듯.

치열한 오디션을 통해 고주희役に 발탁된 신인 여배우 임지은은 그 점이 무척 부담스럽다고. “주인공에 캐스팅되어 무척 기뻐요. 그러나 드라마 성공의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네요.” 원래 악한 성정을 타고난 게 아니라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는 안쓰러운 여자가 바로 고주희라며, 어떻게 하면 미워할 수 없는 악인을 연기해 낼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한다.

민지수 역은 한동안 텔레비전에서 모습을 감췄던 양정아가 맡았다. “텔레비전 출연은 드라마 「첼로」 이후 7개월 만이에요.” 완벽해 보이지만 생리도벽 때문에 깊은 아픔과 컴





「용서」는 서로 대비되는 두 여자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성공과 몰락이라는 운명의 쌍곡선을 그려갈 두 여자. 한 여자의 몰락을 발판으로 이루어내는 성공이기에 이 드라마에는 추악한 인간 욕망과 음모가 넘실댄다. 그 욕망을, 그 일그러진 방법론을 얼마나 극명하게 그려내느냐가 드라마의 관건인 셈이다.

플렉스를 지닌 여자. “영문도 모른 채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말죠.” 권선징악이라는 틀에서 보면 선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언제나 모든 것을 쉽게 용서하는 착하기만 한 인물은 아니에요. 보통 여자일 뿐. 그래서 뒤늦게 주희의 음모를 알고 용서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죠.” 오랜만에 임하는 작품인 만큼 최선을 다할 작정이란다.

그밖에 김병세와 정유석이 각각 그녀들의 연인으로 등장하여 아슬아슬한 사랑의 줄다리를 벌이고 김청, 송재호, 손현주, 윤유선 등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중견 배우들이 한준섭의 가족들로, 정동환이 언제나 민지수에게 힘이 되는 할아버지로 등장하여 드라마를 풍성하게 만든다.

정글의 법칙을 넘어

누구나 성공을 꿈꾼다.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선 흔히 무엇보다도 ‘노력’이 중요하다고 들 한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게 세상살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찌감치 목표를 접어둔 채 성공한 타인의 삶을 질투하거나 또는 부러워하면서 산다. “주목받는 삶이 되기까지 철저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잔인한 정글의 법칙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정글의 법칙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두 여자의 삶을 통해 성공과 사랑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최문석 프로듀서의 말대로라면, 주희와 지수는 단순한 드라마 속의 주인공을 넘어 현실 속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물라크르’로 볼 수 있겠다. 시청자들은 조용히 두 여자의 삶의 궤적을 지켜보며 성공의 법칙에 대해 생각해 볼 일이다. **SBS**

글/김진희 · 자유기고가, 사진/서창식



새 진행자 | 「실속 TV! 시선집중」의 박미선, 박상도, 이동우

완벽한 호흡으로 정보와 재미 충족



「실속 TV! 시선집중」을 통해 주부들과의 공감대를 최대한 이끌어 낼 새 진행자에 박미선, 박상도, 이동우가 낙점되었다. 이들은 「실속 TV! 시선집중」이 정말 실속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모두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주부들을 위한 정통 정보 프로그램 「실속 TV! 시선집중」이 새 진행자를 필두로 새롭게 단장했다. 주부 참여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재미와 감동을 전해, 고정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주시청 대상인 30~40대 주부들과 같은 연령의 박미선과 편안하고 푸근한 인상의 박상도 아나운서, 그리고 재치와 유머로 무장한 이동우를 내세워 정보와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나섰다.

“주부 대상 프로그램은 처음인데, 진행하면서 저도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보고 동감하고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소 부담이 없는 소탈한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박미선은 「실속 TV! 시선집중」을 통해 주부들과의 공감대를 최대한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신사적이고 가정적인 박상도 아나운서와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낼 후배 이동우가 함께 진행해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고.

아내와 함께 시장 보는 일이 취미라는 박상도 아나운서는 「실속 TV! 시선집중」에 대한 애착이 크다.

“진행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맡아 기분이 너무 좋고, ‘시선 집중’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편안하고 솔직하게 이끌고 싶습니다.”

진행에 있어 워낙에 베테랑들인 박미선, 이동우와 호흡을 맞추려면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박아나운서는 「실

속 TV! 시선집중」을 발판으로 거듭나면 좋겠다고 한다.

“그룹활동 등을 하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활동하다 이 프로그램을 맡아 넓은 연령 대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아요. 편안하고 즐겁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속이사 공짜로 헤드드립니다’ 라는 코너를 통해 주부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이동우는 무엇보다 세 진행자들이 호흡을 잘 맞춰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실속 TV! 시선집중」은 세 진행자와 함께 ‘실속이사 공짜로 헤드드립니다’, ‘행복한 티타임’ 등의 코너에 이어 ‘미니특강’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강의라고 해서 딱딱한 설교가 아니라 1회에 방송됐던 ‘신바람 이박사의 주부 우울증 예방 특강’ 등과 같이 경험을 토대로 주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들을 펼칠 예정이다.

무료로 이사하는 행운을 거머쥔 가정이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경매에 내 놓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실속이사 공짜로 헤드드립니다’ 코너와 주부들이 직접 홈비디오로 촬영해 보내오는 알뜰하고 신기한 생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행복한 티타임’ 코너 등은 계속해서 주부들과 함께 만들어간다.

이처럼, 「실속 TV! 시선집중」은 정말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박미선, 박상도, 이동우 새 진행자들이 하나가 되어 프로그램이 약진하길 기대해 본다. **SBS**

글/주정임 · 자유기고가, 사진/김연식

무기력한 일요일을 거부한다

일요일 아침, 한 주의 묵은 피로를 한 방에 날려주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대중탕? 그렇다면 그 후끈한 대중탕의 열기보다 더 화끈하고 짜릿한 일요일의 활력소는 없을까? 이제는 바로 「이휘재의 스포츠 대탐험」을 떠올리면 된다.

스포츠와 레저, 그리고 오락을 접목시킨 국내 최초의 스포츠 버라이어티쇼인 「이휘재의 스포츠 대탐험」의 메인 스타디움에 멋진 남자, 이휘재를 주축으로 한 건강한 이춤 대표 조혜련, 종합방송인 김종석, 대한민국 공식 인어 정유진, 자칭 스포츠 박사 이용호가 땀으로 뭉쳤다.

첫 번째 코너는 '휘재는 도전왕'. 만능 스포츠맨을 꿈꾸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 이휘재가 직접 발벗고 나서 국내·외 정상급 스포츠맨에게 겁 없이 도전장을 던진다. 그리고 내노라하는 최고 코치의 교육 하에 2주간의 피나는 지옥의 훈련을 마치고 일생일대의 대결을 펼치게 된다. 제일 먼저 시드니 올림픽의 은메달리스트인 깜찍한 사격 여전사, 강초





한 주의 끝이자, 한 주의 시작인 일요일. 묵은 피로를 한 방에 날려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줄 스포츠의 세계가 열렸다. 바로 「이휘재의 스포츠 대탐험」이 그것이다. 이휘재를 주축으로 조혜련, 김종석, 정유진, 이우호가 하나로 뭉쳐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할 스포츠 버라이어티쇼 「이휘재의 스포츠 대탐험」을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만나 건강한 한 주를 시작해 보자.

현 선수와 숙명의 격전을 벌였다.

두 번째 코너, '드림스킵 트루'는 평소 시청자들이 한 번쯤은 꿈꿔왔을 레저 스포츠로 세계적인 도전 과제를 완수하는 코너. 패러글라딩에 문외안인 조혜련이 세계적인 대 산맥 알프스의 몽블랑 비행을 시도한다. 운동이라곤 다이어트 체조밖에 못한다는 조혜련, '내가 몸뚱이 얼마나 됐다고...'라며 특유의 너스레를 떨면서도 '드림스킵 트루'라는 타이틀처럼 악바리 근성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아줌마가 여자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실감케 해줄 그녀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세 번째 코너는 '도전한다! 너를 위해'.

어려운 환경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우리의 건강한 청소년들을 위해 그들의 우상인 스포츠 스타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

자신들의 전문분야이지만 평생을 통틀어 한 회 정도도 이뤄내기 힘든 '미션 임파서블'에 도전한다. 도전에 성공할 시에는 그 학생을 위한 격려의 장학금도 전달된다. 그래서인지 선수들의 책임이 더욱 막중한 '도전한다! 너를 위해'. 도전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그의 도와 시도만으로도 아름다운 '도전한다! 너를 위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베어 플레이'로 시청자들의 가슴에 새겨질 것이다.

이제 한 주의 끝자락이기에 하루종일 무작정 옹크리고 '이불 속 대탐험(?)'에만 매진하는 무기력한 일요일은 거부한다.

한 주의 시작인 일요일! 그 시작의 중심에 「이휘재의 스포츠 대탐험」이 도전하는 젊음과 패기가 살아 숨쉬는 무궁무진한 스포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SBS**

글/이수진 · 「이휘재의 스포츠 대탐험」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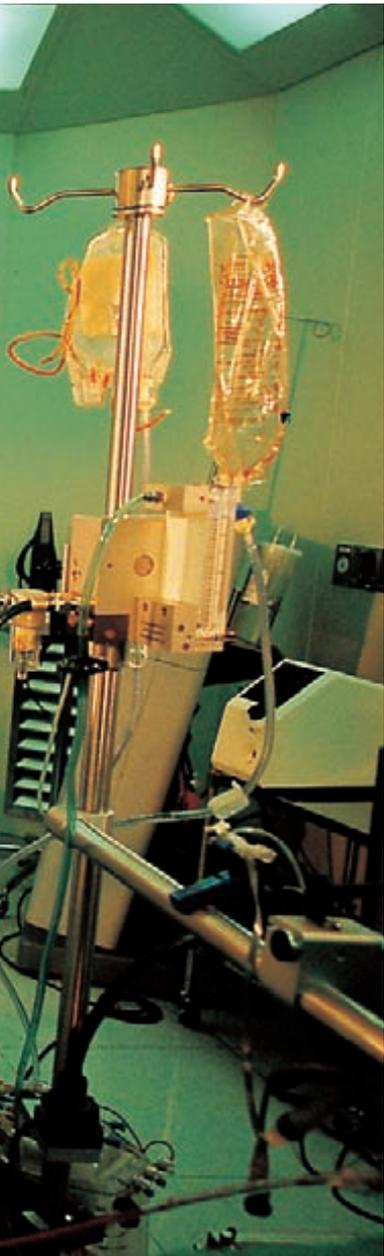
드라마 창 | 일요 드라마 「메디컬 센터」

젊은 의학도들의 숭고한 휴머니즘

극본/인정옥, 연출/이창한, 제작/JS 픽처스
일요일 밤 9시 50분 방송



「메디컬 센터」는 본격 메디컬 드라마로서 멜로드라마에서 탈피, 철저히 휴먼드라마를 지향하고 있다. 주인공들의 인간적인 고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피어나는 숭고한 사랑,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그려내 현대인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늘 아래 새로운 드라마는 없다’고 말한다. 원래 이 말은 ‘나의 피조물 치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구약성서 구절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사람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일는지 모른다.

드라마 제작진은 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오감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새로운 이야기는 영감이 떠올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만든 진부한 이야기가 될 뿐이라는 것을 제작진은 잘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샤라자드’와 같다. 매일 밤마다 왕 앞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으면 처형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진 인물 말이다. 그렇긴 하지만 제작진 중 그 누구도 그러한 상황에 내몰린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다만 운명으로 여길 뿐이다.

새 천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가을 단풍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이 계절에 드라마 제작진은 또 한 편의 새로운 드라마를 시청자들 앞에 선보이며 지금까지 보지 못한 본격 메디컬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다.

「메디컬 센터」는 작금의 이런 현상에 주목하여 ‘생각할 수 있는 드라마’, ‘기억에 남는 드라마’, ‘재미있는 드라마’를 추구한다. 이러한 추구 탓에 이야기 자체는 다소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극의 형식이 대체로 풍자적이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다. 삶의 무거움에 뒤따르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유머라는 진통제를 처방한 만큼 시청자들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거라고 제작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공들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독특한 성격과 매력이 적절히 안배되어 있어 드라마의 재미와 감동이 배가될 터이다.

「메디컬 센터」의 중심에는 4명의 젊은 의사가 있다. 승재는 흉부외과 심장 전문의로 의사로서의 삶에 자신의 인생을 바친 과묵한 인간이다. 인품과 실력 면에서 지도자 과정을 밟아나가기에 손색이 없다. 마취 상태에 있는 수술 환자 앞에서조차 마취 외래 진료 환자를 대하듯 깎듯한 예절을 지키는가 하면, 환자에 대한 강한 소명감으로 환자에게 행해지는 조그만 실수도 용납지 않으며, 수련의에게 집도의 기회를 주는 법이 없다.

그는 일반외과 레지던트 영재의 이복동생인데, 사춘기 때 자신이 영재의 이복동생인



사실을 알게된다. 친자식과 아무런 차별 없이 키워준 영재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 출생의 비밀을 가슴속에 묻은 채 살아간다. 같은 과 전문의 현일과는 학부 시절부터 편치 않는 관계에 있다.

반면에 현일은 귀족적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람둥이로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개방적이고 유쾌한 성격이다. 현일은 의사로서의 소명의식보다는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해서 자신을 향한 승재의 반감을 잘 알면서도 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기울인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없지만 새로운 의학의 흐름과 신기술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토대로 '첨단 의료 궁전'을 세우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으며, 부친과 형제는 모두 저명한 개업의로 장안에 소문난 가족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가연은 차갑고 이지적인 미모의 여의사다. 야망이 강하고 도전적이며, 성공을 위해서라면 도덕에 위배되는 일쯤은 문제삼지 않는다. 그녀는 승재와 대비되는 귀족적이고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현일과 가까워진다.





「메디컬 센터」는 거의 모든 장면을 전문가들에게 검증 받기 위해 6개월 전부터 시내 모 병원에서 합숙을 하며, 거의 매일 밤마다 제작회의를 했으며 독특한 개성을 가진 연기자들의 적절한 배역이 극의 리얼리티와 재미를 한층 살려준다.

영재는 이 세 사람을 다독이고 아우르는 역할이다. 시니컬하고 호방함을 동시에 지닌 일반외과의 늙은 레지던트로, 퇴폐적이고 문학적인 감성을 무기로 사회에 굴절된 의사의 이미지를 타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 잦은 싸움질로 병원에서 낙인이 찍힌 인물이지만, 그의 심성 밑바닥에는 의사를 불신하는 반면 환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깔려 있다. 인턴시절의 사소한 과실로 한 환자가 사망하게 되고, 그는 또다시 방황의 길로 접어들어 급기야 알콜중독 치료까지 받았다.

배역은 승재 역에 감우성, 현일 역에 김상경, 기연 역에 이승연, 그리고 영재 역에는 박철이 열연하고 있다. 주인공들의 독특한 개성에 잘 들어 맞는 배역이다. 이밖에도 송재호(상만 역), 윤주상(국현 역) 등의 중견 탤런트와 한고은(경선 역), 박광현(지태 역), 김민선(수안 역) 그리고 남자 간호사 혁 역에 박준규가 포진해 있어 앞으로 이들의 연기가 사뭇 기대된다. 특히 인턴 역의 김민선과 간호사 역의 김효진(민희 역)이 의사와 간호사 간의 미묘한 경쟁을 그릴 예정이어서 그 재미가 기대된다.

본격 의학 드라마 「메디컬 센터」의 극본은 영화 「여고괴담」, MBC 「테마게임」, 메디컬 드라마 「해바라기」 등의 히트작을 집필한 인정옥 작가가 맡았고, MBC 청소년 드라마 「사춘기」, 「나」의 이창한 프로듀서가 메가폰을 잡았다.

“이 드라마는 멜로드라마에서 비껴나 철저히 휴먼드라마를 지향할 것입니다. 주인공들의 인간적인 고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피어나는 숭고한 사랑,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그려내 날로 삭막해져가는 현대인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창한 프로듀서는 또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마취과 의사, 간호사 등 병원 내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의욕적으로 그려낼 계획이라고 밝힌다.

「메디컬 센터」는 거의 모든 장면을 전문가들에게 검증 받기 위해 6개월 전부터 시내 모 병원에서 합숙을 하며, 거의 매일 밤마다 제작회의를 했다. 이렇게 탄생한 「메디컬 센터」를 통해 연출 인생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하는 것이 이프로듀서의 기대이자 포부이기도 하다. **SBS**

글/박석근 · 소설가, 사진/조광희

세 여자의 아름다운 지상 탈출



대 한해협횡단으로 전국에 수영 열풍이 불고 있을 즈음, 「뷰티풀 라이프」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1998년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경비행기 세계일주에 성공한 이주학 씨가 지구 남·북극점을 잇는 세계 종단일주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번엔 제작팀과 함께 가보면 어떻겠냐는 제의였다. 「뷰티풀 라이프」의 새로운 프로젝트, ‘신 80일간의 세계일주 아름다운 비행’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 새로운 계획의 「뷰티풀 라이프」 쪽 참가자로 프로그램의 세 여자 진행자인 백지연, 김미화, 김원희가 결정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의 일이었다.

일반 여객기와 달리, 작은 몸체로 어디서나 이착륙이 용이한 경비행기의 장점 덕분에 전혀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도전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혹하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비행 고도가 낮기 때문에 기류나 날씨에 따라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또 장시간 동안 화장실은 커녕 다리 한번 펴보지 못하는 작은 기내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세 여자 앵커들 역시 처음엔 몹시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경비행기 조종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을 다녀오면서 이들의 태도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애당초 2~3주씩 릴레이식으로 참가하기로 했던 세계일주 비행에, 백지연과 김원희는 스스로 전 코스에 참여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의욕적인 모습으로 변했던 것이다. 도대체 왜 미국에서의 무엇이 이들을, 여자의 몸이기에 더 불편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이 도전에 그토록 몰두하게 만든 것일까?

현재 LA에서 경비행기 수석 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학 씨를 찾아, 처음 미국으로 향하던 날까지만 해도, 이들 세 여자 앵커들의 마음 속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유니세프 기금마련이라는 뜻깊은 명분이 있기에, 또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책임감이 이들의 등을 떠민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 도착해서 LA 곳곳에 위치한 경비행기 비행장과, 그 비행장에 주차돼 있는 수없이 많은 경비행기를 보면서 이들은 경비행기가 이곳 미국사람들에



처음엔 몹시 망설이던 세 여자 진행자들은 미국에서의 훈련을 통해 경비행기 조종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이들은 각자 교관과 함께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두려움이나 걱정은 완전히 잊은 채 자연의 아름다움과 직접 비행을 하고 있다는 감격으로 탄성의 연발뿐이었다.

겐 자동차와 같이 보편적인 교통수단임을 깨달았다. 또 이 주학 씨를 비롯한 여러 경비행기 교관들을 만나고, 직접 경비행기를 조종 비행해보면서, 경비행기가 일반 비행기나 자동차 이상으로 안전한 교통수단임을 알게 된 것이다. 사실상, 비행 중 엔진이상이 발생하면 그대로 추락하기 십상인 여객기와 달리, 경비행기는 글라이더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엔진 없이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

LA 서부의 브레이크 공항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첫 교육은 비행기를 격납고에서 활주로까지 끌고 가거나 들어오는 지상조종, 택시(Taxi)였다. 경비행기의 택시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양쪽 바퀴를 조절하는 브레이크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들은 이 간단한 훈련을 통해 경비행기 조종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모습이었다. 그러나 경비행기 비행의 가장 황홀한 경험, 그것은 역시 지상의 모든 집들, 심지어 자기 집 뒤뜰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흔들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날면서 맞볼 수 있는 짜릿한 쾌감과, 지상이 아닌 공중에서 보는 하늘과 땅이 빗어내는 황홀한 장관이었다.

이튿날 캘리포니아의 L.A.에서, 「미션임파서블2」의 첫 장면으로 더 유명한 해리조나 주의 세노아, 그리고 네바다주의 새로운 도박도시 라플린까지 미 서부의 삼대 주를 잇는 비행훈련은 오전부터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이루어졌는데, 각자 교관과 함께 비행한 대씩을 조종하는 세 여자 앵커들이 무선을 통해 들려주는 음성은, 두려움이나 걱정은 완전히 잊은 채 자연의 아름다움과 직접 비행을 하고 있다는

신선한 경험이 주는 감격, 탄성의 연발 뿐이었다. 실제로 해리조나 주의 세노아까지 가는 길은, 그랜드캐년의 한 줄기로 황금빛 사막 위에 광활한 산맥이 펼쳐져 있는데, 이때 계곡사이를 맴돌던 바람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터블런스 현상 - 뜨거운 사막 위에서 달궈진 공기가 대기 중에서 공중으로 올라오면서 생긴 상승기류나, 산악 또는 도시지역에서 높은 지형지물들 사이를 맴돌던 바람이 만들어낸 돌풍으로 인해, 비행기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거나 일시적으로 추락하는 현상 - 으로 거의 100미터쯤 급강하하면서, 비행기 천정에 머리가 부딪히는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착륙 후 이들의 표정은 마치 놀이공원에서 처음 제트 코스터를 타고난 아이의 흥분한 표정과도 같았다.

그 후, 쓰기는 커닝 권총에 총알을 장전하기조차 힘들었던 사격연습과 L.A.의 엘몬티 공항에서 하루종일 이루어진 이착륙 훈련까지, 사격으로 팔에는 피멍이 들고 연일 계속되는 훈련으로 심신은 피로한 상태였지만 세 여자 백지연, 김미화, 김원희의 열성은 점점 더해가기만 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출발과 작은 경비행기 안에서 온갖 어려움과 자연스러운 생리현상까지 참으며 가야 할 35개국 80일간의 비행뿐이다. 그들의 말대로, 유니세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그리고 두렵고 해내야만 할 도전을 멋지고 기대되는 도전으로 만들어준 미국에서의 값진 경험들을 더욱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비상할 것이고, 또 저 하늘이 있는 한 그들의 아름다운 비행은 계속될 것이다. **SBS**

글/성민지 · 「뷰티풀 라이프」 작가

문화예술을 향한 지독한 사랑

김수현 문화부 기자

흔 짝 큰 키에 도무지 나이가 짐작 가지 않는 해맑은 얼굴의 김수현 기자(30세). 7년이 넘게 기자생활을 했다면 조금쯤은 닳은 흔적이 보일 법도 하건만 그녀에게는 노회한 모습보다 순수한 열정만이 느껴질 뿐이다.

그녀를 이는 사람들은 김수현 기자야말로 진정한 프로페셔널로 불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김기자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일에 대한 지독한 애정.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당일까지 취재현장을 찾았다. 어찌 보면 무모하다 싶을 정도이지만 그녀 내면의 열정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한참 배가 불러서 조금 힘들게 현장을 돌아다녔을 때였어요. 「공포 연극제」를 취재했을 때였는데 연기자 중 한 사람이 배가 불러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연기려니 생각했는데 배부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그 연기자를 만나보니 정말로 임신한 것이었어요.”

취재원들까지 혀를 내두르게 한 일에 대한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김기자를 진정한 프로페셔널로 인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김수현 기자가 문화부를 맡은 것은 햇수로 2년을 넘겼을 뿐이다. 그녀가 맡고 있는 분야도 공연이나 패션, 여성 등으로 문화 부서에서 각광받는 영화나 대중음악 등과는 조금 동떨어진 파트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2년 경력의 문화부 기자답지 않은 공연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문화부문 전반에 대한 통찰력 때문이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낯선 용어도 많고... 생각다 못해 보도자료가 오면 따로 모았다가 기사화하기 전에 몇 번이고 읽었어요. 문화와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읽었지만 저는 현장에서 공부한 셈이죠. 그러다 보니 이일이 적성에도 맞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주말이 되면 그녀는 일부러라도 발레고 연극이고 가리지 않고 공연장을 쫓아다녔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얼마나 허약하다는 것을 아는지라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문화 분야의 전반을 체화시키기 위해서였다.



김수현 기자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기도 전인 93년 11월 처음으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그녀가 학교에서 공부한 과목은 경영학과. 전공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녀는 세상 모든 일들이 모두 경영과 관련된 것 아니냐며 살짝 웃었다. 경찰기자로 수습생활을 마치고 사회부와 전국부(시청 출입), 편집부를 거쳐 문화부로 옮겼다. 그리 길지 않은 문화부 생활이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처음 문화부를 맡으며 눈여겨보았던 문화계 인사가 팔목상대하여 거목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럴 때면 마치 자신이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국제 무용콩쿨에서 입상한 김지영 씨나, 김용걸 씨 같은 인물이 바로 그런 예였다. 하지만 아직도 문화 뉴스가 전체 뉴스의 양념처럼 여겨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문화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문화 뉴스가 다른 주요 뉴스에 밀려 방영되지 못할 때면 조금 안타까워요.”

그 때문에 그녀는 미처 방송에 내보내지 못한 공연 평이나 공연의 뒤 소식들을 묶어 인터넷상에 풀어놓았다. 예전에는 방송사내 노보에 정기적으로 신던 내용을 지난 5월부터 ‘김수현의 문화가 산책’이라는 코너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는 것.(news.sbs.co.kr)

“사람들이 모두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 해박해지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좋은 공연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문화부 기자로서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기자는 문화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우리나라 공연예술이 대단히 영세하고 수공업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기회가 된다면 예술경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 것도 왜곡된 공연문화를 고쳐놓고 싶은 그녀다운 욕심 때문이다. 자신의 일과 연애하는 사람처럼 열정을 기울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의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SBS**

글/최병일 · 자유기고가, 사진/조광희



과거와 현재를 잇는 대륙 횡단의 길

차량을 타고 달려도 꼬박 한 달은 족히 잡아야 할 실크로드 1만 6,000킬로미터. 동서양을 잇는 이 길을 MTB로 횡단한 한국인 3명이 있다. 141일간 이들은 그 기나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긴 일정의 하루 하루, 그 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웃음을 한아름 안고 돌아왔다.



얼 마 전, 막혔던 철마가 뚫렸다. 이제 막 목침이 하나씩 놓여지는 그 철로는 철책 선을 넘어 평양, 북으로 간다고 한다. 그리고 그 대륙을 잇는 열차의 종착역은 어쩌면 로마, '실크로드'의 출발지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동서양 문물교류의 창, 실크로드! 한때 전 세계인들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를 지배했다는 루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원한다면 어느 학년의 국사 책, 세계사 책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 익숙한 문구가 바로 실크로드를 대표하는 정의다. 고대 로마에서부터 중국의 장안까지를 잇고, 전 세계 과학과 문화를 연결했다는 그 길은 새 천년, 2000년을 맞이까지 수많은 탐험가와 정복가들의 목숨을 건 도전이 있었던 길이다.

바로 그 길에 새 천년 첫 도전장을 내민 한국인 3명이 있었다. 세계 최초로 사하라 사막을 도보로 횡단한 탐험가 최종열(43세)과 음식이라면 개미의 간이라도 내먹을 수 있다는 탐험대의 식량담당 심상현(35세), 그리고, 젊음을 무기로 다니던 회사까지 때려치우고 탐사대에 동참한 이경완(32세)이 그들이다.

차량을 타고 달려도 꼬박 한 달은 족히 잡아야 할 그 길을 그들은 오로지 MTB(산악자전거)로 횡단하겠다고 했고, 제법 거창하지만 소박한 각오로 이들의 탐험은 시작됐다.

이탈리아 로마를 출발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이란, 파키스탄, 중국의 9개국을 거치고, 마지막 태극기를 휘날릴 목적지는 서울 남산으로, 총 1만 6,650킬로미터. 이들의 도박과 같은 게임에 「출발! 모닝와이드」팀이 함께했다. 비



단길, 어찌 보면 험난한 길이기에 붙여진 역설적인 이름은 아닐까? 이 낭만적인 이름이 붙여진 길을 따라, 과거 화려했던 흔적과 현재의 삶을 더듬으며 탐험대는 지난 5월 26일 로마 콜로세움을 출발했다.

141일간, 오전 5시면 탐험대는 졸린 눈을 비비고 길을 나선다. 한낮에는 섭씨 49도를 웃도는 거짓말같은 더위, 장시간 햇볕에 노출된 대원들의 피부는 화상이 심해져 수포가 생겼고, 평균 150~200킬로미터를 목표로 하루 10시간을 자전거 안장 위에서 씨름한 대원들의 엉덩이는 닳고 닳아, 헤어지고 또 헤어져 까맣게 변해갔다. 모든 길이 어려웠지만, 특히 해발 4,000미터가 넘는 히말라야 고산지대를 넘을 때는 현지인들조차 자동차로 이동하기를 권했다. 그래도 그들은 처음의 마음을 잊지는 않았다. 밤이면 야영과 취사까지 2중 3중으로 찾아오는 고통의 시간. 흐르는 계곡 물을 섞어 만든 고추장이찌

비단길, 어찌 보면 험난한 길이기에 붙여진 역설적인 이름은 아닐까?
 이 낭만적인 이름이 붙여진 길을 따라, 과거 화려했던 흔적과 현재의 삶을 더듬으며
 탐험대는 이탈리아 로마를 출발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이란, 파키스탄, 중국의 9개국을 거쳐 서울 남산에 태극기를 휘날렸다.
 악전고투 속에서 탐험은 계속됐지만, 그 어느 길목에서나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식사까지 제공해주는 넉넉한 현지인들이 있었다.
 그 손에 꼽는 며칠의 따뜻한 아랫목만으로도 그들은 지친 일정을 잊었고, 어느새
 비단결 마음으로 탐험을 마칠 수 있었다.



한 통을 그들은 얼마나 반갑고 소중해 했는지...

그들은 어쩌면 실�크로드가 선택한 행운의 사나이들인지도 모른다. 악전고투 속
 에서 탐험은 계속됐지만, 그 어느 길목에서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식사까지 제공하
 주는 넉넉한 현지인들이 있었다. 그 손에 꼽는 며칠의 따뜻한 아랫목만으로도 그들은
 지친 일정을 잊었고, 어느새 비단결 마음으로 돌아와 있었다.



실�크로드는 낙타를 탄 상인들이 오갔던 길이다. 그들은 비단과 향료를 싣고 1만
 6,000킬로미터, 그 길을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의 고려청자도 있었을
 터... 바로 그 길, 1만 6,000킬로미터 비단길을 탐사대는 무사히 자전거로 횡단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도착지, 남산을 오르면서 드는 생각은 과거 그 실크
 로드의 상인들이 전했던 것은 비단도, 고려청자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들이 그 물품을
 전하러 가면서 들렸던 긴 일정의 하루 하루, 그 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거친
 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웃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분명 새
 천년, 앞으로도 '실�크로드' 는 사람들의 새로운 도전으로 남을 것이다. **SBS**



점심시간의 나른함을 일깨운다

「허수경의 러브 러브」

연출/박동주, 송경희, 진행/허수경, 매일 오후 12시 20분 방송

경쾌하고 유쾌한 진행으로 청취자의 사랑을 받아온 진행자 허수경이 자리를 옮겨(파워 FM에서 러브 FM으로) 간판을 새로 달았다.

매일 오후 12시 20분 점심시간의 나른함을 신선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달래주며, 톡톡 튀는 생활이야기로 활기를 불어넣어 줄 「허수경의 러브 러브」에서는 매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점심메뉴를 소개하는 '런치 스페셜 닷컴', 시사문제 '돌발퀴즈', 시사 뉴스를 패러디한 '아이러브 뉴스' 등 다채로운 코너를 준비하고 청취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이밖에 월요일에는 '별걸 다 아는 남자, 별걸 다 아는 여자', 화요일 옛 사랑의 추억 속으로 떠나보는 '러브레터'가, 수요일에는 '사랑한다 말해요' 등의 코너가 마련돼 있다. 그리고 목요일 '사랑에 관한 해석 남녀'를 통해 사랑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보고, 금요일 '공자왈 맹자왈' 코너를 통해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하소연을 갖는 시간을 마련했고, '내 사랑 트로트', '노래문장 만들기' 등이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준비돼 있다.



LOVE FM

성인을 위한 한밤의 라디오 세상

「서갑숙의 LOVE FM, LOVE MUSIC」

연출/구경모, 진행/서갑숙, 매일 오전 0시 방송

대부분의 라디오 채널들 심야시간대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30~40대가 소외된 시간대였다. 이처럼 소외된 성인 청취 층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적 정보와 주옥같은 명곡들을 「LOVE FM, LOVE MUSIC」에 마련했다.

솔직한 여성 서갑숙이 진행을 맡은 「서갑숙의 LOVE FM, LOVE MUSIC」에서는 30~40대 삶의 잔잔한 행복을 모색하며, 청취자와 전화로 만날 수 있는 '러브 러브 토크', 자신만이 간직한 러브스토리를 소개하는 '내 마음의 LOVE STORY' 등이 마련됐다.

또한 'LOVE LETTER FOR YOU' 코너에서는 부치지 못한 편지 등 애절한 러브스토리를 소개하고, '라이브카페 클럽 1035'에선 30~40대의 문화적 돌파구로 형성된 라이브카페를 라디오에 구현한다. 또한 가수겸 정신과 의사 이범용, 김창기 등이 초대손님으로 참여해 30~40대의 진정한 삶과 사랑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진행자 서갑숙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라디오 진행을 하게돼 너무 좋다"며 "인간 서갑숙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할 것"이라고 각오를 말했다.



LOVE FM

달콤한 식초 같은 방송으로의 초대

「유정현의 두시탈출」

연출/고민석, 진행/유정현, 매일 오후 2시 방송

편안하고 다정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전문 MC 유정현이 라디오 진행자로 면모를 갖추고 청취자들에게 인사를 한다. 그 동안 인기리에 방송됐던 「두시탈출」의 새 진행자가 되어 박철의 바통을 이어 받아 이달 6일부터 방송한다.

“전에 진행하던 사람이 너무 유명하면 부담스럽기 마련이죠. 하지만 제 캐릭터를 살려 달콤하면서 식초같은 진행으로 편안한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FM의 특성을 살려 나른한 오후, 방송을 들으며 박장대소가 아닌 살짝 미소지을 수 있는 그런 점잖은(?)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 진행자 유정현의 생각이다. 이를 통해 따뜻한 사회, 나누는 사회가 되는 초석이 됐으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람으로 더 나아가 청소년들과 꿈과 미래를 나누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나른한 오후, 유정현이 마련하는 달콤하고 식초 같은 방송, 「유정현의 두시탈출」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POWER
FM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

「김동완의 10!10! 클럽」

연출/김광태, 진행/김동완, 매일 밤 10시 방송

그룹 신화의 리더 김동완이 청소년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요 프로그램 「10!10! 클럽」이 김동완을 새 안주인으로 맞아 가요와 진출한 사연 등으로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김동완의 10!10! 클럽」에서는 요일별로 다양한 코너를 통해 청취자들과 함께할 수 있다.

월요일에 마련된 '세상에 이런 일이'는 의문스러운 일이나 기상천외한 일들을 콩트로 엮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고, 화요일 '이프 유' 코너는 제시된 주제를 놓고 가정을 해보는 시간으로 청취자와 초대 손님이 같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다. 또 청취자들이 보낸 최고의 사연을 골라 소개하는 '사연 대 사연'은 수요일에,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핑클과 함께 풀어보는 '핑클의 러브레터' (목요일)를 포함해 '인기가요 텐텐' (금요일), '뮤직테라피' (토요일) 등의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일요일에는 공개방송을 통해 팬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10!10! 클럽」은 특히 김동완과 함께 활동하는 신화의 멤버들을 매일 전화로 연결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 청소년들의 고민과 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 SBS

POWER
FM



C I N



special movie

SBS 창사 10주년 특선영화



필사의 추격자 (NARROW MARGIN)

감독/피터 하이얼스, 주연/진 헤크먼

방송/11월 12일 새벽 1시 20분 · 담당PD/김성환

변호사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캐롤은 캐나다로 숨는다. L.A의 검사 콜필드(진 헤크먼 분)는 살인 현장에서 캐롤의 지문을 발견하고 그녀를 찾기 위해 캐나다로 찾아간다. 캐롤을 증인으로 세게 하는데 성공한 콜필드는 돌아오는 길에 캐롤과 함께 살인범 일당에게 추적 당하는데...

쥬라기 공원 2-잃어버린 세계 (LOST WORLD)

감독/스티븐 스필버그, 주연/제프 골드블럼, 줄리안 무어

방송/11월 13일 저녁 8시 50분 · 담당PD/김박

사고로 인해 쥬라기 공원이 폐쇄된 지 4년. 과거 DNA 추출로 공룡을 부활시켰던 해먼드 박사(리처드 아텐보로우 분)는 쥬라기 공원이 폐쇄된 후에도 그 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슬라 소르나' 섬의 'B구역'이라는 곳에 공룡들을 자연 그대로 관찰하고 있다. 해먼드 박사가 화장인 인젠사의 사장은 공룡들을 포획해 캘리포니아의 샌디고에 제2의 쥬라기 공원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는데...



대부지가 (大富之家)

감독/고지삼, 주연/장국영, 양가휘, 유청운

방송/11월 13일 밤 12시 50분 · 담당PD/김성환

4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홍콩의 어느 임(任)씨 집안. 자손이 많다보니 늘 바람 잘 날이 없다. 연로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 집안 가장 '임대분'의 아내에겐 다가오는 선달 그믐날 밤에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려는 작은 소망이 있다. 그러나 썰렁한 선달 그믐날 밤 식탁. 이때 가족들이 하나 둘씩 찾아와서 식탁을 채우고 집안은 다시 활력이 넘치기 시작한다.

위험한 연인 (TWO IF BY SEA)

감독/빌 베넷, 주연/산드라 블록, 데니스 리어리

방송/11월 14일 밤 12시 20분 · 담당PD/김박

슈퍼마켓 경리 로즈(산드라 블록 분)와 पार्ट타임 미장공이자 사기꾼들과 한패거리인 프랭크(데니스 리어리 분), 두 연인은 프랭크의 사촌형 비노의 지시로 호화저택에서 앙리 마티스의 그림을 훔쳐서 구매자에게 전하러 뉴 잉글랜드 섬으로 향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부주의로 이들은 경찰에 쫓기게 되는데...



미니언 (THE MINION)

감독/장 마르크 피쉴, 주연/돌프 룬드그렌

방송/11월 15일 밤 12시 35분 · 담당PD/배숙현

20세기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뉴욕의 어느 지하철 강도에서 수도관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해골이 발견된다. 고고학자 카렌은 그 해골에서 템플 기사단의 옷과 장식을 발견하고는 템플 기사단의 수도승, 루카스(돌프 룬드그렌 분)를 도와 열쇠를 지키려 하는데...

F M A



channel 6

이달의 SBS 영화 특급 | 금요일 밤 10시 55분 방송



스티븐 시걸의 응징자 (OUT FOR JUSTICE)

감독/존 폴린, 주연/스티븐 시걸

방송/11월 3일 · 담당PD/김하정

뉴욕 브루클린에서 백주에 마약수사반 형사 바비가 처참하게 살해당한다. 그것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격분한 동료 지노(스티븐 시걸 분)는 즉각 중무장을 하고 범인 리치(윌리엄 포사이드 분)를 찾아나선다. 지노와 리치는 브루클린 출신의 죽마고우이지만 한 친구는 형사로, 한 친구는 범죄자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가는 곳마다 범죄를 일삼는 리치 일당을 뒤쫓던 지노는 죽은 동료 바비의 책상을 조사하다가 뜻밖의 단서를 발견한다. 바비의 정사장면을 찍은 사진이 발견되고 그 사진 속의 여자는 바로 리치의 정부였던 것이다. 결정적 제보를 받은 지노는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리치의 아지트를 급습하는데...

비포 선라이즈 (BEFORE SUNRISE)

감독/리처드 링클레이터, 주연/에단 호크, 줄리 델피

방송/11월10일 밤 12시 5분 · 담당PD/배수현

비엔나를 거쳐 파리로 달리는 유럽횡단 기차안. 소르본느 대학생인 셀린느는 부다페스트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고 가을 학기 개강에 맞춰 파리로 돌아가는 길이다. 셀린느는 옆자리의 독일인 부부가 시끄럽게 말다툼하는 소리를 피해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거기서 제시라는 미국인 청년과 우연히 얘기를 나누게 된다. 아직도 꿈꾸는 소년같은 제시와 감수성이 풍부한 셀린느는 잠깐 사이에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주고받는 사이 기차는 어느덧 비엔나 역에 도착한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던 제시는 셀린느에게 같이 내릴 것을 제의하고, 셀린느는 제시와 함께 비엔나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마음먹는데...



스피어 (SPHERE)

감독/배리 레빈슨, 주연/더스틴 호프만, 샤론 스톤, 사무엘 L. 잭슨

방송/11월 17일 · 담당PD/김박

태평양 해저 깊숙한 곳에서 외계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미확인 물체가 발견되자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만든다. 심리학자인 노먼 굿먼 박사(더스틴 호프만 분)는 팀에서 자신의 과거 연인이었던 생화학자 베스 헬퍼린(샤론 스톤 분), 수학자 해리 애덤스(사무엘 L. 잭슨 분), 천체물리학자 테드를 만난다. 탐사팀은 첨단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는 우주선이 외계가 아닌 미래의 지구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고, 금빛의 스피어를 발견한다. 그러나 스피어 발견 이후에 의문의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한다.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스피어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현실로 나타내게 한 것임을 알게되는데...

접속

감독/장윤현, 주연/한석규, 전도연, 김태우, 추상미

방송/11월 24일 · 담당PD/조희수

동현(한석규 분)은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이 갑자기 사라진 후, 그녀에 대한 그리움만 지닌 채 살아가는 라디오 방송국 PD다. 동현은 함께 일하는 방송작가 은희(추상미 분)와 자신의 선배 태호와 원치 않는 삼각관계에 얽힌다. 어느 날 잊지 못하는 옛사랑인 영혜로부터 전달된 음반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한편 수현(전도연 분)은 록메이트인 희진의 애인 기철을 짝사랑하는 CATV 홈쇼핑 채널 쇼퍼가이드이다. 동현은 영혜로부터 음반을 받은 후 그 음악을 방송으로 내보내는데, 수현은 자동차 사고를 목격하면서 그 음악을 듣게 된다. 수현이 그 음악을 신청하자 동현은 영혜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수현과 컴퓨터 통신을 통해 접속하는데...





국내 최대 디지털 콘텐츠 유통업체 탄생

공중파의 멀티미디어 기술과 대기업의 글로벌 유통망이 결합된 국내 최대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업체가 탄생했다.

SBSi(www.sbs.co.kr 대표:박찬근,윤석민)는 현대 종합상사(대표:정재관), 현대백화점(대표:이병규)과 공동으로 디지털 콘텐츠 유통전문업체인 (주)에스앤하이(SnHi)(대표:이시권)를 지난 10월 10일 출범시켰다.

(주)에스앤하이는 인터넷 방송, 디지털TV, IMT-2000 등 뉴미디어에 이용될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판매가 주요 사업영역이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 ▲플랫폼사업 및 인터넷 방송센터 구축과 컨설팅을 포함한 방송 관련 인프라사업 ▲인터넷 방송과 오프라인 유통망을 연결한 이커머스(e-Commerce)사업 등을 사업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주)에스앤하이는 SBS의 멀티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제작기술의 노하우와 현대종합상사의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현대백화점의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망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콘텐츠 유통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3사가 합작해 만든 신설법인 (주)에스앤하이는 자본금 70억 원(현금) 규모로 SBS가 50퍼센트(35억), 현대종합상사 29퍼센트(20억), 현대백화점 21퍼센트(15억)의 지분을 출자했으며, 지난 9월 20일 법인 등록을 마쳤다.

(주)에스앤하이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시권 대표는 “국내 최고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망을 온라인상에서 마련할 것”이라며, “(주)에스앤하이를 동영상 엔터테인먼트포털과 슈퍼프로덕션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콘텐츠 유통업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권 대표는 MBC와 SBS에서 편성기획, 제작기획, 제작관리, 문화사업 기획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방송관련 경력을 쌓은 바 있다.

특화된 여성 전문 회사 (주)SBS美

SBS가 인터넷 여성 인구확대 시대에 발맞춰 특화되고 전문화된 여성 전문 회사를 설립했다. 바로 ‘여성, 나를 아름답게 한다’는 모토로 지난 9월 29일, 신설법인 ‘SBS美’를 설립한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시킨 종합 미디어 회사 SBS美는 SBS의 콘텐츠팀에서 근무하던 박광호 씨가 대표이사를 맡

고, 방송사업팀의 김돈 PD, SBS키즈클럽의 이재룡 이사 등 패션과 뷰티 관련 관계자들이 모여 발족했다.

신설법인의 주 업무는 온라인상에서 각종 패션과 뷰티에 관련된 정보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상에서는 뷰티센터 등과 제휴하여 패션,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 휘트니스, 다이어트, 성형, 피부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가입된 회원들을 위한 fashion & beauty show, 이벤트, 세미나 및 슈퍼모델선발대회, 그외 미와 관련된 행사를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회원들의 아름다움에의 욕구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뷰티 포털 사이트이다.

SBS美는 이를 위해서 각계 권위자들과 협력 및 제휴를 맺고, 연내 사이트(www.sbsme.com)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온라인 상담 및 정보제공에서부터 오프라인의 모든 서비스가 one-line system화 되어 아름다움에 관한 한 명실공히 국내 최고 수준에 이르는 시너지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슈퍼모델선발대회의 기본 자원인 모델아카데미에서는 모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차밍 및 에티켓 교육도 실시하여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에도 그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국내 최초 멀티캐스팅 드라마 「그녀를 보라」

지상파와 인터넷 방송이 함께 제작하고 연속 방영하는 멀티캐스팅 드라마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SBS와 인터넷 방송 SBSi는 같은 드라마를 공중파와 인터





넷 방송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전개해 두 가지 결말로 끌어내는 멀티캐스팅 멜로드라마 「그녀를 보라」(연출 이현직)를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방송한다.

‘한 드라마를 공중파(broadcasting)와 인터넷(webcasting)을 오가며 전개하는 멀티캐스팅(multicasting) 기법은 SBS와 SBSi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드라마에 등장하는 웹사이트를 현실에 그대로 재현하여 시청자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볼 수 있도록 해서 인터랙티브 효과를 극대화 했다.

또한 드라마 개시 이후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드라마 주인공들 중 한 명과 한 시간 동안 화상채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10월 25일에는 지희역을 맡은 황인영과의 화상채팅이 진행되었다.

「그녀를 보라」는 10월 24일 60분물 2부작으로 방송되는 지상파에 이어, 11월 16일까지 인터넷으로 3분물 20부작으로 매일 10시 방송된다.

드라마의 발단은 공중파에서 먼저 제기되고, 남자주인공 판석이 지희를 쫓는 내용은 SBS를 통해 이어지지만 지니를 쫓는 내용은 SBSi(www.sbs.co.kr)에서 방송된다. 같은 발단에서 시작한 드라마가 지상파와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따라 다른 결말을 가져오는 셈이다.

조직의 심부름으로 다이아몬드를 훔친 남자 주인공 판석은 공모자가 죽게 되어 행방이 묘연하게 된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한 여자를 추적하게 되는 것이 드라마의 발단이다.

단 하나의 단서인 그 여자의 개인 홈페이지 주소를 추적하는 판석에게 두 가지 상황이 설정된다. 지희넷(www.jiheenet)과 지니넷(www.jinee.net)이다. H와 N 두 글자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공중파와 인터넷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지희넷을 추적하는 내용은 코믹하고 조직간의 액션을 위주로 전개되며, 공중파에서 방송된다. 지니넷을 추적하는 내용은엽기적이고 미스터리하게 전개되며, 인터넷으로 방송된다.

제작진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지희넷과 지니넷을 실제로 운영해서 드라마에서 판석이 웹사이트를 통해 두 여자를 보는 것과 동일하게 현실에서 시청자들도 볼 수 있도록 했다.

남자주인공 판석은 인재모, 여자주인공 지희는 황인영, 지니는 이지현이 맡았으며, 지희의 동료 역 선주는 네티즌 투표를 통해 당선된 이정음이 맡았다.

SBS 이현직 PD는 “지금까지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쌍방향 드라마 형태를 선보이긴 했지만 공중파와 인터넷이 손잡고 멀티캐스팅 드라마를 제작한 것은 실험적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방식의 드라마 도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SBSi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buy6.com’
「줄리엣의 남자」 명품관 오픈

유명 백화점의 명품관을 방문해야만 살 수 있는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SBSi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buy6.com’에서는 「줄리엣의 남자」 명품몰을 오픈하고 드라마에서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해외 유명 브랜드 의상을 판매한다. 건조, 소니아리켈, 크리스찬라크루와, 조지젠슨 등 해외 명품을 비롯해 고이노, 캐서린햄렛 등의 국내 명품도 buy6.com에서 쇼핑, 주문, 구입이 모두 가능하다.

이들 명품관들은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은 업체들로, 드라마 「줄리엣의 남자」 명품몰에 입점함으로써 처음으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드라마 제1회에서 차태현이 착용한 조지 젠슨의 수공예 목걸이의 경우, 소량으로 제작해 판매되고 있어 쉽게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장 자체도 찾기 힘들다. 또한 수공예로 제작되기 때문에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야 구입할 수 있다. 현재 buy6.com에서는 5개를 한정 판매하고 있다.

buy6.com에서는 이외에도 김성령이 입었던 건조 원피스를 35만 5,000원에, 예지원이 착용했던 10만 원 상당의 캐서린 햄렛 스카프를 8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SBS**



TELEVISION

CHANNEL 6

SBS

2000년 11월 1일 현재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용서
- 9:00 도전! 퀴즈 퀸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SBS 화재작 시리즈
- 12:00 짱이와 깨모
- 12:10 정겨운 우리 가락

PM

- 4:00 마법의 섬 띠또 띠또
- 4:3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 5:50 왕부리 텃코
- 6:15 드래곤 볼
- 6:45 @골뱅이
- 7:15 엔포 다큐 아는 것이 힘이다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자꾸만 보고 싶네
-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월화드라마 천사의 분노
- 10:55 최고를 찾아라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 00:35 SBS 골프



최고를 찾아라



천사의 분노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용서
- 9:00 도전! 퀴즈 퀸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SBS 화재작 시리즈
- 12:00 짱이와 깨모
- 12:10 정겨운 우리 가락

PM

- 4:00 마법의 섬 띠또 띠또
- 4:3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 5:50 왕부리 텃코
- 6:15 드래곤 볼
- 6:45 @골뱅이
- 7:15 휴먼TV 아름다운 세상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자꾸만 보고 싶네
-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월화드라마 천사의 분노
- 10:55 두 남자 쇼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 00:35 SBS 스포츠 스페셜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용서
- 9:00 도전! 퀴즈 퀸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SBS 화재작 시리즈
- 12:00 짱이와 깨모
- 12:10 정겨운 우리 가락



뮤직엔터

PM

- 4:00 마법의 섬 띠또 띠또
- 4:3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 5:50 비스트위 네오
- 6:15 포켓 몬스터
- 6:45 @골뱅이
- 7:15 뮤직엔터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자꾸만 보고 싶네
-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드라마 스페셜 줄리엣의 남자
- 10:55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 00:35 SBS 스포츠 스페셜

Thursday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용서
- 9:00 도전! 퀴즈 퀸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실속 TV! 시선 집중
- 12:00 짱이와 깨모
- 12:10 정겨운 우리 가락

PM

- 4:00 마법의 섬 떠도 떠도
- 4:3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 5:50 비스트워 네오
- 6:15 포켓 몬스터
- 6:45 @골뱅이
- 7:15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자꾸만 보고 싶네
-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드라마 스페셜 줄리엣의 남자
- 10:55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 00:35 SBS 스포츠 스페셜



@골뱅이

Friday



자꾸만 보고 싶네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용서
- 9:00 도전! 퀴즈 퀸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금요 컬처클럽
- 12:00 짱이와 깨모
- 12:10 정겨운 우리 가락

PM

- 4:00 마법의 섬 떠도 떠도
- 4:3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 5:50 하얀 마음 백구
- 6:15 트랙시티
- 6:45 @골뱅이
- 7:15 이경실, 이성미의 진실게임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자꾸만 보고 싶네
-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기분 좋은 밤
- 10:55 영화특급

AM

- 00:35 SBS 나이트라인
- 00:50 스포츠 와이드
- 01:00 SBS 스포츠 스페셜

Saturday

AM

- 6:00 토요일특집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용서
- 9:00 토요일 스타클럽
- 10:00 생방송 행복찾기(1부)
- 11:00 생방송 행복찾기(2부)



이홍렬 쇼

PM

- 12:00 SBS 뉴스
- 12:10 열린 TV 시청자세상
- 1:1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 4:00 SBS 뉴스
- 4:10 순풍 산부인과 스페셜
- 5:20 기쁜 우리 토요일
- 6:30 좋은 예감 즐거운 TV
- 8:00 SBS 8 뉴스
- 8:35 오늘의 스포츠
- 8:50 SBS 창사10주년 특별기획 덕이
- 9:50 이홍렬 쇼
- 10:50 그것이 알고싶다
- 11:50 별난 행운 인생 대역전

AM

- 00:50 SBS 나이트라인
- 1:00 생방송! 토커넷 쇼

Sunday

AM

- 6:00 일요특집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1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00 시사 포럼
- 8:50 도전! 1000곡
- 9:50 이휘재의 스포츠 대담형
- 10:50 좋은 친구들

PM

- 12:00 SBS 뉴스
- 12:10 접속! 무비 월드
- 1:0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 4:00 SBS 뉴스
- 4:10 생방송 SBS 인기가요
- 5:20 호기심 천국
- 6:30 뷰티풀 라이프
- 8:00 SBS 8 뉴스
- 8:35 오늘의 스포츠
- 8:50 SBS 창사10주년 특별기획 덕이
- 9:50 메디컬 센터
- 10:50 뉴스 추적
- 11:30 남희석의 토크콘서트 색다른 밤

AM

- 00:50 SBS 나이트라인
- 1:00 특선 의학 시리즈



호기심 천국

Σ FM LOVE FM 103.5MHz AM 792KHz



2000년 11월 1일 현재

AM

- 5:00 뉴스
- 5:05 유명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굿모닝 일본어
- 6:30 봉두원의 SBS 전망대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봉두원의 SBS 전망대
- 8:30 노성태의 경제레이다
- 8:45 명의에게 듣는다
- 9:05 아름다운 세상 손숙, 배기완입니다
- 11:05 김천식의 세상 속으로

PM

- 12:00 낮 종합뉴스
- 12:20 허수경의 러브 러브
- 2:00 SBS 뉴스라인
- 2:20 송영길, 윤지영의 한판 승부
- 4:05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 5:05 문인숙의 노래 세상
- 6:20 이성미, 지석진의 라디오 데이트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김민선의 나는 1035다
- 10:05 고수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 00:00 서갑숙의 Love FM Love Music
- 2:00 Music Topia
- 4:00 쿵짝! 노래는 트롯트

AM

- 5:00 뉴스
- 5:05 유명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김재홍의 시인의 마을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이도환의 역사 기행
- 8:05 조경철의 자동차 25시
- 9:05 아름다운 세상 손숙, 배기완입니다
- 11:05 김천식의 세상속으로

PM

- 12:00 낮 종합뉴스
- 12:20 허수경의 러브 러브
- 2:00 SBS 뉴스라인
- 2:20 송영길, 윤지영의 한판 승부
- 4:05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 5:05 문인숙의 노래 세상
- 6:05 이성미, 지석진의 라디오 데이트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김민선의 나는 1035다
- 10:05 고수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 00:00 서갑숙의 Love FM Love Music
- 2:00 Music Topia
- 4:00 쿵짝! 노래는 트롯트

월~토요일 ▶ 05:00~07:00 매시 정각에 뉴스 ▶ 09: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일요일 ▶ 05: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기아오티마컵 2000 SBS 프로골프 최강전 개최

SBS는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기아 오티마 컵 2000 SBS 프로골프 최강전」을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태영 C.C.에서 개최한다.

지난 92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9회째를 맞는 이번 SBS 프로골프 최강전에 이 대회 우승 후 LPGA에 진출, 세계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 한 96년 우승자 박세리, 97·98년 우승자 김미현 선수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남자부에서는 국내 최고 실력의 김종덕, 박남신, 최광수, 강옥순 선수 등이 출전해 국내 최강 프로골퍼에 도전한다.

이번 경기부터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변경되어 남·여 각 32명의 선수들이 18홀 매치 플레이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총 상금 3억 원이 걸린 이 경기는 2일부터 3일까지 32강전에서 4강전까지가 치러지고 5일에는 3·4위전과 결승전이 열린다.

SBS TV는 3일째인 8강전부터 방송할 예정이며, 골프채널에서는 전 대회를 모두 생중계할 예정이다.

새 만화 시리즈 「비스트워 네오」 방송

지난달 26일부터 「빅토리 구슬동자」의 후속으로 새 만화영화 「비스트워 네오」가 방송되고

있다.

「비스트워 네오」는 지난 99년 일본에서 총 35부작으로 만든 공상과학 애니메이션.

「비스트워 네오」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맘모라이크와 신병들이 혼란을 위해 혹성 가이아에 가 있던 중, 전설의 용사 라이오콤보이의 메시지가 담긴 블랙박스를 발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우주에 흩어진 안락모아 캡슐을 회수하기 위한 부대 사이버트론은 매그마트론이 이끄는 전투부대, 데스트론과 우주를 무대로 싸움을 벌이며 활약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AM

-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 6:00 박영일의 파워 잉글리쉬
- 7:00 이숙영의 파워 FM
-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 11:00 심혜진의 시네 타운

PM

-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 2:00 유정현의 2시 탈출
- 4:00 유영석의 뮤직사이트
- 6:00 박소현의 러브게임
-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 10:00 김동완의 텐! 텐! 클럽

AM

- 00:00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 박스
- 2:00 사운드 오브 뮤직

AM

-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 6:00 박영일의 파워 잉글리쉬
- 7:00 이숙영의 파워 FM
-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 11:00 심혜진의 시네 타운

PM

-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 2:00 유정현의 2시 탈출
- 4:00 유영석의 뮤직사이트
- 6:00 박소현의 러브게임
-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 10:00 김동완의 텐! 텐! 클럽

AM

- 00:00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 박스
- 2:00 사운드 오브 뮤직

**M
E**

POWER

107.7MHz

**S
B
S**

「줄리엣의 남자」 O.S.T 출시

드라마스페셜 「줄리엣의 남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출시됐다. 국내 정상급 작곡가와 연주인들이 대거 참여한 기획앨범 성격의 이 음반은 깔끔한 모던 록에 덧씌워진 차태현, 김민희, 예지원, 지진희 등의 실감나는 목소리 연기가 삽입돼 있다.

「내마음을 뺏어봐」의 오종록 프로듀서와 「결혼», 「해피투게더」 등의 드라마로 친숙한 박계욱 작가가 만들어내는 신세대풍의 발랄한 스토리와 영상 그리고 「내마음을 뺏어봐», 「해피투게더」 등의 음악감독을 맡았던 최성욱 씨가 들려주는 박진감 넘치는 록 사운드가 드라마 초반부



로 행복할걸', '차라리' 등 이미 네티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어떤 욕심'은 동영상 트랙을 따로 실어 드라마가 종료된 후에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천사의 분노」 주인공 확정

새 월화 드라마 「천사의 분노」의 네 주인공이 확정돼 드라마의 맛을 올렸다.

군입대로 빠진 이훈 대신 남자 주인공 정민 역에 안정훈이, 여주인공 은하 역에 「경찰특공대」의 주인공 김유미가,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주인공 준수 역에 이세창이 각각 캐스팅 되면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으며 또 한 명의 여 주인공 미란 역을 김시원이 맡으면서 완벽한 팀워크를 이룬 것.

벤처기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과 사랑, 그리고 배신을 담은 「천사의 분노」는 지난달 23일 첫 방송을 했다.